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살맛나는 농어촌 만들겠다

2025년까지 목표역 지하화·시민광장 조성

목포 김원익

100년 역사 목포역을 시민광장으로 바꾸는 목포역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 오는 2025년까지 목표역을 지하화하고,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지상 6만 평에는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조성하는 등 목표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목표역은 2025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목포-송정간 KTX) 개통에 맞춰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발점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신역사를 건축, 목표의 랜드마크로 만들 계획이다. 목표역 지하화에 필요한 1000억원의 예산은 국비로 추진하겠다. 1913년 만들어진 목표역은 시민



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공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소통·민주주의의 상징으로도 역할을 해왔지만, 신도심 개발 이후 목포 중심부의 단절을 고착, 심화시켜 목포 시 재편의 걸림돌이 되어왔다. 지역 숙원사업인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공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해양관광공사 설립해 여수 유치하겠다

여수갑 주철현

한국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 여수에 유치하겠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해양관광 시장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해양관광만을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은 전혀 없는 상태다. 우선 1단계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대해 기

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과 별개로 독립적인 '해양관광진흥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 2단계로 해양수산부에 해양관광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3단계는 해양관광 시장의 성장에 따라 해양관광 개발과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그리고 국제해양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전담하는



를 정비해 여수를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재도약 시켜 내겠다.

가칭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과 여수유치다. 여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이후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했다. 해양관광 관련 제도를 정비해 여수를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의 메카로 재도약 시켜 내겠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추진

여수를 김희재

여수국가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여수산업단은 40년 이상된 노후 설비와 하청업체의 열악한 인력 운용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문제도 끊이지 않아

지역민 걱정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구역은 광주·전남 전 지역과 경남 일부지역, 제주도까지 그 관할구역이 방대하다. 청사 역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수산업 및 광양 제철이 위치한 남해안권의 대기오염 및 유해물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남 동부권의 여수와 순천 광양



과 경남 남해, 하동 등 남해안 권역을 묶어 섬진강유역 환경청 설립을 추진하겠다.

여수산업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 세 도입, 지역인재 의무고용비율 2배 상향, 여수 소재 대학의 석유화학 관련 첨단학과 개설도 함께 추진하겠다.

쪼개진 순천 해룡면 선거구 되찾아 올 것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저의 제1호 법안은 선거구획정법안이다. 이번 총선에서 쪼개진 제 고향 해룡면 선거구를 다시 찾아오겠다. 선거운동 기간 수차례 밝힌 대로 해룡면을 되찾아오지 못하면 정치생명이 끝나는 각오로 임하겠다.

선거기간 공언한 대로 전남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수 10·19 사건특별법 제정, 고속철도(KTX) 전라선 고속화·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등 제가 공약한 사항을 임기 동안 반드시 지켜내겠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국정



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제대로 변화시키고 싶다.

운영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겠다. 검찰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검찰 출신인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제대로 변화시키고 싶다.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해 역사 진실 규명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서동용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겠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역사적 진실규명,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여수10·19사건은 여수, 순천만의 아픔이 아니라 광양과 구례를 포함해 전남 곳곳에 피맺혀 있는 역사다.

특별법 제정을 꼭 이뤄내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 드리겠다. 광양보건의대 정상화도 제가 공을 들이고 싶은 공약이다. 광양보건대에는 보건계열 학과만 10개다. 광양보건대는 보건서비스가 더욱 필요해지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대학이자 광양을 경제를 떠받



부권 당선인들과 함께하겠다.

치는 한 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로 살리겠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보호법 개정, 전남 동부권의 대유치·대학병원 설립 공약도 동 힘을 합쳐 이뤄내

한전공대 개교·생물의약산업벨트 반드시 완성

나주·화순 신정훈

코로나 19로 타격받은 농어촌 경제 회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우선 주력하겠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한 한전공대 개교와 생물의약 산업벨트를 반드시 완성하겠다. 2022년 3월 한전공대 개교와 함께 4세대 방사광가

속기를 혁신도시에 유치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추겠다. 나주를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 화순은 백산산업특구를 기반으로 생물의약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대한민국 바이오 메디칼 허브로 만들겠다. 영산강 고대문화권개발 국가계획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원도심 도시재생, 농업농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든든하게 책임지겠다.

촌 활력 회복 등 선거기간 내건 주요 공약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국정개혁과 적폐청산의 선봉에 서겠다. 문재인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고, 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든든하게 책임지겠다.

임신·출산·교육환경 조성 젊은층 정착 최선

해남·완도·진도 윤재갑

사람이 모이는, 더불어 잘사는 해남·완도·진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들이 농어촌을 떠나지 않고, 모이게 하려면 소득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 농수산물 가격이 안정돼야 한다. 정부가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농수산물 최저가격이 보장되고, 기본 소득이 보장돼 농어민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또한, 젊은이들이 농어촌에 정착해 살기 위해 임신·출산·교육환경이 도시에 못지 않게 갖춰져야 한다. 출산·보육 공약으로 어린이 응급 및 임신부 100원 택시 도입,



교육반 설치, 지역 역사 교과서 발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담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유아차·어린이 장애인 안전인도 조성을 약속했다. 어린이·청소년 공약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진로상담 센터 운영, 관내 고등학교 특수 언어

재해보험 확대 농어민 경영안정 도모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 우선 농업 재해보험을 확대하겠다. 재해 농가에 대해 기초생활수준의 생활비를 지급해 농어민의 경영안정 도모에 힘을 쏟겠다.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도입하겠다. 담양·함평·영광·장성의 100년 도약의 기틀을 만들겠다. 담양은 대한민국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 함평의 경우 생태교육, 체험 관광도시로 건설하겠다.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를 조성해 광주형일지리를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



월산에 이르는 5096ha 규모의 편백림을 산림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겠다.

화를 추진하겠다. 영광은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장성의 경우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장성군 향릉·담양군 월산에 이르는 5096ha 규모의 편백림을 산림관광 휴양 벨트로 조성하겠다.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 이루겠다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승남

기초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제도화를 이루겠다. 과잉생산, 가격폭락으로 무배추·양파·마늘 등 기초 농수산물을 갈아엎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초농수산물 기준가격을 정해 정부가 기초농수

산물 폭락 시 농어업인에게 보상하도록 제도화하겠다.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도 기초농산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 생산 시기 수입 농산물 공급량을 사전에 줄이는 등 대응을 보다 강화하게 될 것이다. 전남 중남해안(고흥·보성·장흥·강진)에 정부 투자, 대기업 투자를 이끌어 차별화된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 2017년 기



부가 나서 국내 관광산업 투자를 이끌면 농어촌은 지속 가능해진다.

준 우리나라 해외 여행객은 2649만 명, 관광객자는 14.7조원이다. 10%만 국내로 유입하면 경제효과 2조5000억원, 고용효과 7만3000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국내 관광산업 투자를 이끌면 농어촌은 지속 가능해진다.

공익형 농업·수산·임업 직불제 도입 앞장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농어민 소득 보장과, 농어촌의 의료·보건 개선에 힘을 쏟겠다. 안정적인 농어민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와 전일업 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겠다. 농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균형을 맞춘 공익형 수산직불제 및 공익형 임

업 직불제 도입에 앞장서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내에 농어업인 의료보전안전 전담부서 설치, 지역의 공공의료대학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방역부·노인부 시설을 위한 정부조작법 개정,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각종 SOC 확충에도 재선의원답게 역할



지역발전 현안 사업 추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

을 하겠다. 무안공항 경우 KTX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완공, 영암대불산단 활성화 및 F1경기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업다각화, 신안의 흑산공항 건설 등 지역발전 현안 사업 추진에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상의 결과를 내겠다.

68 창간68주년 광주일보

데크의 세대교체!

긴 수명, 물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데크의 세대교체, 친환경 세라믹 데크!!

※ 혁신제품 와이드형데크

시민이 찾는 데크 길, 그러나 이런 문제가... 습기에 의한 부식, 곰팡이 발생 등으로 파손 안전사고 걱정

유지관리가 힘드시죠?

기존 데크의 문제점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세라믹 데크 탄생!!

시멘트, 규사, 펄프, 석유를 원료로 압출성형

친환경 세라믹 데크는 수명이 다하면 재생골재로 재활용됩니다.

천안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4(오목리9) TEL. (041)622-0118 FAX. (041)622-0851

담양공장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농공단지 3-15 TEL. (061)882-7788 FAX. (061)882-7789

http://humanent.kr A/S : 070-4649-6210 지역협력사 모집 중